

원미경 “이젠 가족에 내 생각 강요보다 맞추려고요”



tvN 월화드라마 ‘가족입니다’ 엄마 이진숙 역 80년대 ‘3세대 트로이카’ 당대 최고 인기 배우 “과거 인기 기억 없어요…새로 시작하는 느낌”

은 행복을 나눠야겠다고, 또 너무 전투적으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상하게 드라마데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김은정 작가 대본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매들 얘거나 엄마와 딸들의 대화라든지, 작은 신(scene)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그렸어요. 그래서 연기하기는 참 좋았죠. (웃음)”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편 김상식(정진영 분)이 해바라기를 들고 다가오던 장면을 꼽으며 “젊었을 때 데이트 하던 시절의 설렘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다”고 말했다.

원미경은 1980년대를 풍미한 ‘3세대 트로이카’ 중 하나로 꼽힌다.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TBC 공채 20기 탤런트로 데뷔, 드라마 ‘사랑과 진실’ ‘아파트’, 영화 ‘청춘의 덫’ 등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2002년 MBC 드라마 ‘고백’을 끝으로 미국으로 떠나 잠정 은퇴했으나 2016년 MBC TV ‘가화만사상’으로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가족입니다’는 2년 만에 짝은 드라마다.

극중 이진숙과 비슷한 나이에, 실제로도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그는 “연기하기 굉장히 편했다”면서 “(이번엔) 연기에만 몰입한 것 같다. 얼굴이나 그런 건 이젠 신경 안 써도 되고 자유로웠다”며 웃었다. 자녀 역을 맡은 배우 추자현, 한예리, 신재하와 함께 연기할 땐 진짜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했다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일을 한 자가 오래됐어요. 공백기가 있었고 해서 (과거의 영광은) 다 잊어버렸어요. (웃음) 정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옛날의 그런 것들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를 그냥 가정주부만 살아서 기억이 없어요.”

제작발표회 당시 ‘역시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 작품 하기 전에 진짜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감사하게 했어요. 앞으로 좋은 작품은 계속 하고 싶네요.”



원미경

한소희, 굴곡진 가정사 털어놔 “어머니 빛 변제…피해자에 사과”



배우 한소희가 최근 불거진 어머니 사기 의혹에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굴곡진 가정사를 털어놨다.

한소희는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글을 쓰셨을 피해자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치 불구하고 글을 적어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5세에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밝히며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들게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소희는 데뷔 후 채무자들의 연락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활동을 내세워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에는 나도 모르게 친한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며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 일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글을 올려 한소희의 어머니에게 쫓겨 97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홍춘이’가 부른 ‘그릴 줄 알았지’

배우 최란 트로트 가수 변신 화제



배우 최란이 드라마 ‘허준’에서 맡았던 배역 ‘홍춘이’를 예명으로 트로트 가수로 나선다.

최근 최란 측이 친 구인 방송인 김승현이 가사 쓴 ‘그릴 줄 알았지’라는 곡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다. 가수 신수아가 작곡을 하고, 인기곡을 다수 만든 작곡팀 플레이사운드의 구희상이 편곡했다.

최란 측은 “경쾌한 리듬으로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라고 신곡을 소개했다.

최란은 “연예계 41년차, 배우 최란으로 살아왔는데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게 되어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잘될까 했더니 연타석 히트… ‘놀면 뭐하니?’ 벌써 1년

김태호 PD·유재석의 릴레이 카메라 유산슬 ‘부캐’ 뜨고 ‘썩쓰리’가 평정

김태호 PD와 유재석이 ‘무한도전’ 시즌 종영 후 다시 만나 릴레이 카메라를 한다고 했을 때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흥린 왕이 됐다.

지난해 7월 27일 처음 방송한 MBC TV ‘놀면 뭐하니?’가 지난 20일 방송 1주년을 7일 앞뒀다.

지금은 드러머 유고스타부터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 라면 셰프 라세, 하피스트 유르페우스, DJ 유DJ뽕디스파워, 치킨 튀기는 남자 닭터우, 썩쓰리의 유두래곤까지 유재석 ‘부캐’ (부캐릭터)를 줄줄이 탄생시킨 프로그램이 됐지만 ‘놀면 뭐하니?’가 처음부터 이런 컨셉트를 목표로 출발한 건 아니다.

시작은 일대일 릴레이 카메라였다. 카메라 한 대가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자는 게 김 PD의 목표였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유고스타, 유산슬 같은 부캐가 생겨

났으며, ‘유니버스’ (유재석의 유니버스)가 구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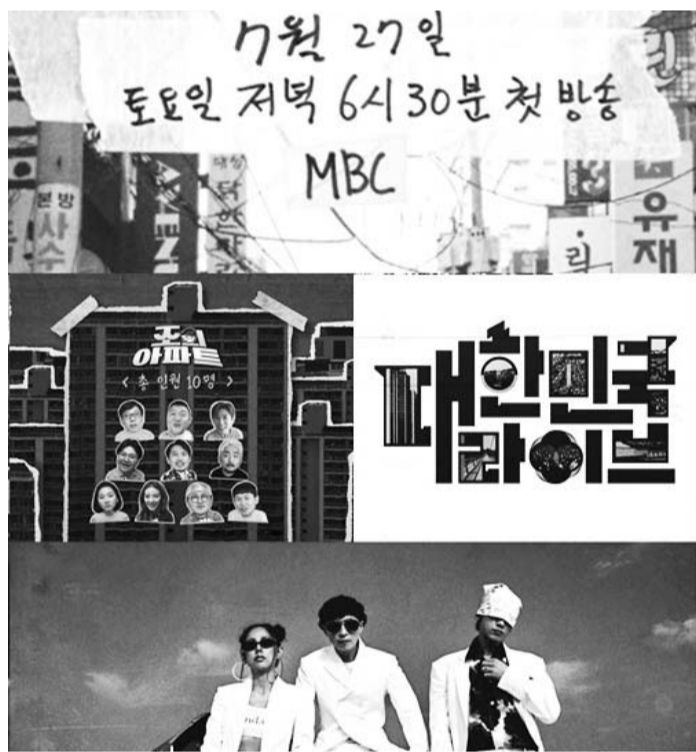
트로트 전성기 초기, 프로그램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한 유산슬에 이어 최근에는 이호리, 비와 몽친 썩쓰리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은 분위기다.

오는 25일 데뷔를 앞두고 선보인 커버곡 ‘여름 안에서’와 선공개된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는 실시간 음원 차트를 쓸쓸이하며 그룹 이듬처를 높은 시청률과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다소 늦어진 프로젝트에도 시청률은 꾸준히 8~10% (닐스코리아) 대를 유지 중이다.

세 명은 오는 25일 MBC TV ‘쇼! 음악중심’에서 ‘다시 여기 바닷가’의 데뷔 무대를 갖고 또 다른 곡 ‘그 여름을 틀어줘’를 공개한다. 유두래곤의 ‘두리쥬와’를 비롯한 멤버들의 솔로곡도 다음 달 1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 측은 “썩쓰리가 만들어낸 ‘놀면 뭐하니?’의 전성기와 이후 더욱 확장된 ‘벌터 유(YOO)니버스’의 모습은 어떻게 기대된다”며 “새로운 디지털 숏폼 콘텐츠와 스핀오프 프로그램,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통한 또 다른 확장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 (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김밥·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 062)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빌라·주택·상가·토지·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일)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킨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 (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 (영산포우체국 앞) 심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 (신안리안)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 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 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단,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복 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자 연 모 가 발 안 병 원 헤 어 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개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도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종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 성 전 통 한 방 사 계 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 상 일 월 태 주 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무면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